그는 사랑의 제단에 무엇을 바쳤는가?

E. 사바토의『터널』에 나타난 치명적인 사랑

양 운 덕

***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살린다면 어떤 힘으로 살리고, 죽인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가? 사랑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삶의 활력이라면 어떤 힘을 주는가? 사랑이 죽음의 사신이라면 왜 사랑의 이름으로 그 칼을 휘두르는가? 사랑의 제단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물이 필요한가?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존재의 일치가 있는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한 것처럼 반쪽들의 일치, 완전성, 조화, 결합이 있는가? 아니면 흔히 보는 것처럼 파국들과 증오가 있을 뿐인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씁쓸하게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장을 찍고 있는 장면에서 웃으면서 그런 차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호성의 변증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미움이 '사랑과 미움의 변증법'에서 보다 크고 심오한 사랑으로 복귀하는 미움의 반정립이 아니라 미움이 자체의 힘으로 독립하고 사랑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우리는 단죄하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 있는가?

사랑이 '죽이는' 사랑이라면..... 사랑이 죽음을 부른다면.....

아무도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죽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사랑-희생, 사랑-살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사건은 사랑의 표상으로 죽음 충동이나 공격 충동을 가리는 것일 뿐인가?

(하이데거가 지적하듯이)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자라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므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들의 생명을 사랑의 제단에 기꺼이 바친다. 오델로 역시 자기 연인의 생명을 질투와 증오의 표지를 덧붙여서 헌정한다.

나와 너의 사랑이 나와 너의 '차이'를 보존한 더 큰 일치가 아니라 너를 나에게 대입하고 너의 자율성과 차이를 철저하게 지우는,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나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타자 죽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각, 너의 취향, 너의 욕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욕망과 일치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이란다. 나의 아들아! 엄마! 저의 사소한 취향까지 당신의 것으로 바꿔놓으시면 저라는 존재는 더 이상....)

사랑의 제단에 무엇을 바칠 것인가? 사랑의 나무에서는 미움의 가지가 자라고 질투의 꽃이 피어난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사랑을 가리는 찬사는 공허하거나 추상적이다. 질투가 자극하고 숙성시키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며, 미움으로 변형되지 않는 사랑은 그저 따뜻한 관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미워한다. 미움의 힘은 사랑의 힘과 방향이 반대일 뿐 그 크기와 힘이 대동소이하다. 사랑하였으므로 미워하였노라!

*** 그림 속의 창문 앞에 선 그녀**

E. 사바토의『터널』은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자의 사랑을 다룬다. 화가인 화자는 한 여성을 지독하게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그녀를 죽이고 만다. 그는 바로 그녀의 살인범이다.『터널』은 이란 살인범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려고 한다. 작가는 사랑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문한다. 사랑과 죽음의 주제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살펴보자.

화자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존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 자신이 죽였다고 털어놓는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고 말았소! 당신을 죽인 인간이 바로 나였고, 나는 당신의 차분하면서도 불안스러운 얼굴을 만지지도 못한 채 마치 유리벽으로 보듯이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소! 나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잔인했소!" (Sabato, 101/108)[1]

그는 1946년 한 살롱에 "모성"이라는 그림을 출품한다. 그는 비평가들이 작품의 구성이 뛰어나다고 한 점에 대해서 그것이 "심오하게[지적인 어떤 것"을 포함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다른 것에 주목한다. 그림 윗부분 왼쪽에 작은 창문 너머로 원경(遠景)이 아주 작게 보이는 장면이 있다. 쓸쓸한 해변에서 한 여자가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여자의 시선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멀리서 자기를 부르는 가냘픈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65/19) 아마 그 장면은 "불안에 사로잡히고ansiosa 절대적인 고독"을 암시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장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문제의 장면이 뭔가 본질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65/19)

전시회 첫날, 낯선 아가씨가 그림 앞에서 한참 머물러 있으면서 "창문 너머의 장면을 뚫어지게 쳐

1) E. Sábato,『El túnel(터널)』의 스페인어 본과 번역본의 쪽수를 병기함.

다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장면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녀가 세계 전체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내 그림 앞으로 지나가거나 멈추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다."(65/20)

그는 불안스럽게 그녀에게 주목하다가 그녀가 사라지자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녀를 부르고 싶은 고통스러운/어두운 욕망angustioso deseo 사이에서" 망설인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사라지면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는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매일 전시장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나는 그녀만, 그녀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는, 오로지 그녀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마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작은 장면이 점차 커져서 화폭 전체를, 내 작품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았다."(65-6/21)

***우연한 마주침**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그녀와 우연히 마주친다.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한 회사의 엘리베이터 앞에 단 둘이 서게 된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우연 같은 것은 결코 없어요. 나는 몇 달 동안 당신을 생각해 왔어요. 오늘 거리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따라왔고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묻고 싶은데, 그건 바로 창문에 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창문이라뇨? .... 무슨 창문을 말하시나요?"

그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된 것 같아서 포기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녀가 그를 부른다.

"용서하세요, 선생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세요....너무 놀라는 바람에 그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쓸모없는 사물들과 존재들의 혼돈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다시 제 자리를 잡고 어떤 질서에 따른다고 느껴졌다.")

"선생님께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 줄 몰랐어요."

"그런 그 장면을 기억한단 말인가요?"

"그 장면을 늘constantemente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내던지더니 갑자기 사라진다. 그는 이튿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회사 출입구에서 오전 내내 기다린다. 포기하고 가려다가 그녀를 보게 된다. 그녀를 근처 광장 쪽으로 끌고 가서, 왜 도망쳤냐고 다그친다. 그녀가 도망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난 아가씨가 무척 필요하단 말이오."

"....."

"왜 말을 않는 거요?"

"저는 하찮은 여자예요. 선생님은 위대한 예술가시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 같은 여자를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84/63-4)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그는 비평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창문 장면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것에 주목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얘기한다. 그는 그녀가 자기처럼 '느낀다'고, 그녀가 창문 장면을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한다.

"전에는 많이 생각했고, 집 한 채를 짓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소. 하지만 그 창문 장면은 예외 였소. 정확한 이유는 잘 몰랐지만 그 장면은 그런 식으로 그려야 한다고 느꼈소. 그 이유는 여전히 잘 모르겠소. 실제로 그 창문 장면은 그림의 나머지 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마도 그 얼간이 같은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그 점을 상기시켜 준 것 같소. 나는 장님처럼 더듬으며 길을 가고 있는데, 아가씨가 나처럼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나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른다고 조금 전에 말했잖소.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내가 생각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86/69-70)

그는 수용소 장면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괴롭히고, 죽고 죽이는 무익한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미의 결핍'에 관해서 생각한다. 인간의 삶이 인간과 무관한 천체들의 사막에서 부르짖는 익명의 절규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 해변 장면이 뭔가 심오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왠지 무섭게 느껴져요. 아니 그보다는 '나'를 더 심오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거요. ... 바로 그거요. 명확한 메시지는 아니고.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나'를 심층적으로profundamente 드러내고 있어요."

"혹시 절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요."

"내 생각에도 절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봐요. 아가씨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절망이 메시지 같은 것도 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87/72-3)

.....

그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본다. 그녀는 만남의 다리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사귐의 다리는 심연 위에 있는 일시적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뭘 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여자거든요." (88/73-4)

그들은 다시 만난다.

"정오부터 당신 생각만 하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소."

"나도 역시"

"나도 역시라니, 무슨 말이오?"

"나도 역시 생각만 하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 말이오?"

“모든 걸 생각했어요.” 78

“어떻게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생각했다는 말이오?”

“이 모든 게 다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의 그림을 비롯해서...어제 우리가 만난 것이라는지,....오늘 일도 그렇고....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만 생각했다고 당신에게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애매한 표현에 화가 나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만이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본다.

“나는 당신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의 당신의 옆얼굴이며, 당신의 밤색 머리카락이며, 당신의 딱딱한 눈빛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모습이며, 당신이 걷는 방식 같은 것을 모조리 생각했어요.....”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하겠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89-90/79-80)

그 날 이후에 그는 그녀 생각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번민하다가 농장으로 떠나고 없는 그녀의 집을 찾아간다. 그는 집에서 그녀의 남편인 아옌데(그는 시각장애인이다)를 만나서 그녀가 남긴 편지를 전달 받는다.

한번은 농장으로 떠난 그녀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보낸다. 짧은 편지와 몇 단어만으로 된 답장이 오간다.

편지: “당신을 사랑해요Te quiero, 마리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답장: "당신에게 많은 해를 끼칠까 두려워요.”

그의 답장: “설령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는 괜찮소.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죽고 말 거요. 당신을 보지 못한 채 보내는 매 순간은 끝없는 고문interminable tortura과 같소.”

이틀 후에 그녀가 전화를 해서 당장 만나기로 약속한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난 시간이 더 빨리 흐를까 해서 이리저리 정처없이 걸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는가! 세상이, 여름 오후가, 보도에서 노는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지금 사랑이란 것이 사람을 어떻게 눈멀게 하고 어떤 마력을 지니기에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지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웃다가 죽어도 좋다!”(102-3/111)

이후에 그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그들의 사랑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 사랑과 그 괴로움**

그들은 한 달 이상 매일같이 만난다. 화자는 이 시기가 경이롭지만 (슬픈 일들이 많아서) 무섭기도 하다고 회상한다. 마리아가 화실에 찾아오곤 했는데 그는 그녀의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어머니나 누이의 사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미진함을 넘어설만한 육체적 결합이 참된 사랑을 보장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뿐이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생기고 이해 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끔찍한 경험까지 하게 된다.

"우리는 내 화실에서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 마리아가 지닌 여러 모순과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태도 때문에 그 기간 내내 나의 감정은 가장 순수한 사랑과 가장 격렬한 증오 사이에서 방황했다. 곧 그녀의 모든 언행이 작위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가끔씩 그녀는 순결한 사춘기 소녀 같은가 하면, 어떤 때는 평범한 보통 여자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기나긴 의심의 행렬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언제?" (107/123)

그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녀의 양팔을 틀어쥐고 비틀어 대면서 눈을 뚫어질 듯 쳐다보며 "사랑, 참된 사랑을 보장해 줄 것을" 강요한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자신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까?

그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육체적 열정passion fisica이 포함된 어떤 사랑을 가리키는가? 그는 마리아와 "확고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육체적인 열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이루었다는 확신을 갖기도 했지만, 그 소통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부드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통이 끝난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만을 느끼고 더울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곤 했다.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한 순간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항상 위와 같은 느낌을 동반하는 우울증, 곧 그 아름다운 순간이 덧없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을 본질적으로 소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따른 우울증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써 완화되곤 했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아니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108/125)

그들이 그 순간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고통스러워 한 것은 의사소통의 순간이 허망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더욱 나쁜 점은 그들의 육체적 융합, 일치fusión unirons, corporalmente를 확실하게 하려는 안타까움 때문에 육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거리감을 낳

았다.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의 융합fusión 상태를 연장시키거나 확고하게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지닌 그런 고정 관념을 지워버릴 욕심으로 자신이 참된 쾌감sentir un verdadero,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쾌감casi increíble placer을 느끼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곤 했다."(108/126)

그는 억지로 그녀에게 참된 감정과 느낌이 어떤 것인지 털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육체적으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면 회피하곤 한다. "마침내 완전한 회의에 빠진 그녀는 육체적인 접촉은 우리의 사랑을 위해 무익하고 위험하다고 나에게 인식시키려고 애썼다."(108/126)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마리아의 사랑의 본성naturaleza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다. "만일 그녀가 연극을 하지 않았다면 육체적인 결합이 해롭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그녀가 육체적 결합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문하곤 했다. 그녀가 육체적 결합을 처음부터 싫어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녀의 쾌락은 가장된 것일 수도 있었다."(108/127) 이런 점 때문에 둘은 서로 다툰다. 그녀가 미묘하고 새로운 의혹들을 만들면 그에 맞서서 그는 더욱 복잡한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혹과 질문의 어처구니없는 대결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랑? 사랑의 파괴? 의혹을 거친 더 깊고 확고한 사랑?

"그녀의 위선적인 속임수 앞에서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어린애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녀에게 마음과 몸을 내맡겼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확증하면 당신을 개처럼 죽여 버릴 테다."(109/127)

어느 날 그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그녀에게 "창녀"라고 소리 지른다.

"내가 증오와 후회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뒤에 용서를 받으려고 그녀에게 달려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고, 그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잔인하고, 불공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이라고 자책했다. 그런 내 행위는 그녀가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동안에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행복한 듯이 미소 짓자 그녀가 계속해서 슬픈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또 어떤 여지라도, 하다못해 창녀들까지도, 자신이 그런 식으로 평가 받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평가에 어떤 진실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어떤 여자도 그처럼 빠르게 즐거운 기분으로 되돌아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109/128-9)

그들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매일같이 되풀이된다. 가끔 말다툼이 차분하게 끝나고 산책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2]

그는 날이 갈수록 반복되고 비꼬이는 자신의 질문들이 "그녀의 침묵, 쌀쌀맞은 시선, 공허한 말들, 몇 번의 농장 행, 바람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의 질문들 가운데 "마리아 자신과 그녀의 사랑을 무시무시하게 조망했던 예리한 질문"(113/138)이 있다. 마리아가 아옌데와 결혼했으므로 "그 남자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이것을 '아옌데 문제'라고 부른다.

*** "아옌데 문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마리아가 남편 아옌데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는 이 문제가 두 의문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마리아가 아옌데를 한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었을 까? 아직도 마리아가 아옌데를 사랑하고 있을까?"(113/139)

만약에 그녀가 아옌데를 사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인가, 헌터인가? "마리아가 여러 남자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남자들 각자를 계속 불쌍한 것들, 철부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우리 각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사람el unico'일 수도 있고, 그 밖의 남자들은 단순한 그림자들로서, 그녀가 피상적이거나 현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113/140)

그는 이 문제를 해명하고자 아옌데와 결혼한 이유를 묻는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lo queria라고 했지 '사랑한다lo querio'라고 하지는 않았잖소."

---

2) "하지만 그처럼 다정한 순간들은, 갈수록 폭풍우가 거세지고 구름이 짙게 깔리는 하늘에서 비치는 불안정한 햇빛처럼 날이 갈수록 횟수가 줄고 시간도 짧아졌다. 어쨌든 나의 의구심과 집요한 질문들은, 마치 칡 하나가 자신의 무서운 덩굴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옭아매 질식시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휘감아 버렸다."(109/129)

"당신은 말끝마다 트집을 잡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대는 군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군요."

"....."

"왜 대답을 못하는 거요?"

"대답하는 게 부질없는 짓 같아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화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번 대화는 전에 했던 것들과는 달라요. 난 당신에게 현재에도 아옌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당신은 그렇다고 답했소. 언젠가 부두에서 내가 당신의 첫 사랑이라고 내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그래, 어떤 답을 할 것요?" (그는 그녀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어떤 진술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힘겨워한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114/140-2)

***의혹과 질문, 질문이 낳는 의혹들**

그는 그녀가 남편을 친오빠처럼 사랑한다고 하자 다시 질문한다. "현재도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반드시 대답해야 하오."

"이런 식으로 묻다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주 간단해요. '예', '아니오'라고 답하면 되요."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일단 한다는 의미로 맏아들이겠소."

"좋아요. 그렇다고 해 두죠. 뭐."

"그렇다면 당신이 그걸 원한다는 말이군요." (그는 악의적으로 단정한다. 마리아 자신이 남편과 함께 자는 것을 실제로 원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빠 같은 애정'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는 것뿐이었지 내가 그걸 원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오, 그래요. .....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원치 않으나 '남편에게는 당신이 원해는 하는 것처럼 믿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군요."

(마리아는 얼굴빛이 변하고 눈물을 흘린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와 함께 자는 것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기색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남편과의 육체적 결합이 단지 남편이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고매한 정신에 대한 존경 때문에 당신이 하는 희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면, 아옌데는 다시는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을 게 분명하오. 곧 당신이 남편과 계속해서 잠자리를 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감정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그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성적 쾌감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여자란 말이오."

"당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군요."

"난 심층적인 것el fondo에 관심이 많으니까, 겉으로 나타난 형태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합시다. 본질el fondo은 당신이 몇 년 동안 그에게 당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여자라는 점이오, 이제 그 어떤 애숭이도 이 문제의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소. 즉 당신이 나 또한 속이지 않을 이유가 있었나 하는 거요. ... 나는 데스데모나의 아버지가 오셀로에게 아버지를 속인 여자는 다른 남자도 속일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소. 따라서 나는 당신이 몇 년 동안 계속 아옌데를 속였다는 사실을 내 뇌리에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소." (그 순간에 그는 잔인성을 최대로 발휘하고픈 충동에 이끌리고, 그녀가 천박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한 마디 덧붙인다.) "장님을 속이다니."(115-6/144-7)

*** 내가 또 다른 나에게**

그는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면서 약간 후회한다.

그의 이런 사악한 만족감 밑에 "보다 순수하고 다정다감한 '다른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는 어리석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은밀하게 마리아 편을 들고 싶어 했다. 그 다른 나는 내 의식과 의지를 장악하고 그런 말을 막고자 했다. "문제의 말이 끝나고 나서 (....) 비로소 나는 내 존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나더러 마리아에게 용서를 빌고, 마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두 의식으로 분열되면서 한 자아는 아름다운 행위를 권하고 다른 자아는 그것을 사기, 위선, 거짓 관대함이라고 고발한다. 한 쪽은 모욕하라고 충동질하고, 다른 쪽은 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고발한 나를 비난한다. 한 자아가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동안에 다른 자아는 세계의 추함과 행복의 우스꽝스러움을 보여준다.(117/149-150)

어쨌든 마리아의 영혼이 입은 상처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두 사람의 정신 사이에 놓인 개폐교를 들어 올렸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에 휩싸여서 엄청난 굴욕도 감수하기로 하고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지만, 그녀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화실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은 내게 아무런 원한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었고, 내 의지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나는 화실 한 가운데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118/150-1)

그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힌다. 술에 취해 선창으로 걸어가서, 주저앉아 울면서 발 밑에서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보면서 자살 유혹을 느낀다.

그는 마리아가 농장으로 떠난 뒤에 편지를 보낸다.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를 용서하라고, 자기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내용일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내용은 같지만 점점 더 황량한 분위기를 띤다.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날 밤 그녀와 헤어지고 난 뒤의 일들을 모두 고백하고, 자신의 그 동안의 천박한 행위를 털어놓고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것까지 고백한다. 그런 것들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천박한 행위와 고독에 따른 절망감을 쓰면서 자신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연민 때문에 울기까지 한다. 그는 마리아가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은근히 바라고 그런 희망으로 즐거워한다.

애정이 담긴 마리아의 편지가 왔는데 농장에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가방과 화구 상자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간다.

그가 도착한 '아옌데' 역은 간이역인데, 마리아는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 마중 나온 운전수는 그녀가 몸이 불편하다고 전한다. ('그녀의 앙큼한 속을 누가 알랴.') 그는 그냥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농장으로 간다. 그 곳에서 마리아 없이 헌터와 사촌 여동생 미미 아옌데를 만난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채 그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몇 가지 화제에 대해서 원치 않은 대화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마리아가 갑자기 들이닥친 사촌 여동생을 피하느라고 몸이 불편한 체 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는 마리아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이한 슬픔을 느낀다. "내가 그 집에 도착해 헌터와 미미가 위선자이며 변덕이 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영혼의 바깥 부분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은 헌터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도 그들 집단의 일원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유사한 속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아니, '느꼈을 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은 슬픔으로 물들었다."(133/186-7)

*** 황홀한 순간의 지극한 슬픔**

화자는 농장에서 며칠 있으려고 갔지만 바로 다음날 일찍 떠난다. 떠나기 전 날 마리아와 함께 해변을 걷는다.[3]

그들은 바위에 앉아서 파도소리를 들으며 (틴토레토의 「사라센인의 해난 구조」에 묘사된 것과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

마리아는 사실 자신이 그 그림을 본 이후에 그를 애타게 그리워했다고 고백한다. 화자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그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오로지 그녀만 생각하며 견딘 것처럼 그녀 역시 그런 그리움을 안고 지낸 것이었으니. 그러면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들은 이런 그리움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할까? 이런 고백은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닐까?

마리아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하늘과 이 바다를 바라보는 꿈을 셀 수 없이 꾸었어요."라고 얘기를 시작한다. "이따금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늘 함께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전시장에서 당신의 그림에 나타난 그 '창문의 여자'를 보았을 때, 당신을 바로 나 자신처럼 느꼈고, 당신 역시 어떤 사람을, 무언의 대화자를 무턱대고 찾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부터 나는 늘 당신만 생각했고, 그리고 이곳,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낸 바로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장면을 수없이 꿈꾸었어요. 어느 날 나는 당신을 찾아가서 내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한번 착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도 착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기대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와주었고, 밤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으며, 당신을 만

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문제의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뜻밖에 당신을 만나

---

3) 그는 평소 알던 마리아와 다른 모습,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나무줄기, 마른 잎,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색을 보며,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유칼리나무 향기를 맡고도 열광한다. 그에게 생경한 그런 태도가 다른 남자에게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다. 그의 슬픔은 파도소리와 해변의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커져 간다. 그 감정은 은 그가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의 속성을 지닌 것 앞에서 느끼던 것이었다.

게 되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온 몸이 마비될 정도였고, 바보처럼 말 한마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실례했다고 무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 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당신 뒤를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산 마르틴 광장에서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내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나는 이러다가는 당신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과 내가 당신을 타락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당신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기를 꺾고, 당신이 아리송한 말과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애 썼어요."(137/198-199)

화자는 조용히 아름다운 감정들과 음울한 생각들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그녀의 멋진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술처럼 황홀한 이 순간"이 자기 생전에 결코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고 느낀다. "결코 더 이상은 없어."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 발 밑의 심연에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고 애쓴다.

그는 어렴풋이 마리아의 조각난 말들을 듣고 있다. "오, 하느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긴 시간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경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작은 존재, 추악함과 무의미가 가득한 사소한 존재입니다....."

화자는 마리아가 자신을 추악하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고상하지 못하며, 마리아 역시 자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서글퍼한다. 그는 그녀의 "몸을 찢고 목을 졸라서 바다에 내던지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우리는 이런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의 빛으로 앞으로 닥칠 어두운 갈등의 미로를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는 황홀한 일치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사랑하는 두 존재를 온전한 하나로 만드는 방식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사랑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가?

화자는 뒤이은 사소한 사건에서 질투를 바탕에 둔 기이한 추론과 오해의 인식론으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들이 농장으로 돌아오지 헌터가 몹시 흥분한다. 그는 해변으로 산책 나가기 전에 아무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해변에서 대화하는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그는 헌터가 질투를 하고 있으며, 그와 마리아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 친족 관계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리아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마리아가 다른 사

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안 헌터가 짜증을 냈을 가능성이 더 컸다. 어찌 되었건 헌터의 짜증이 질투심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그는 내게 적대감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마리아 말고는 그와 나 사이에는 서로 적대감을 느낄만한 원인이 없었다." (139/205)

잠시 후 마리아와 헌터가 다투는 장면을 보며 밤새 잠 못 이루는 화자는 온갖 추론을 펼친다. 마리아가 사촌 시동생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 헌터가 질투심 때문에 마리아를 괴롭히고, 마리아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왜 자주 농장에 오는가? 농장에 홀로 살고 있는 헌터 때문인가?

㉯ 마리아가 헌터를 언급할 때마다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까닭은?

㉰ 마리아가 그날 오후에 자신의 약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녀에게 편지로 일련의 비열한 짓들(술에 취한 일, 창녀와 어울린 일 등)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녀가 (자신이 "출항하는 배와 황혼에 든 공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녀의 삶에도 나처럼 어둡고 야비한 점들이 있다는 것인가?

화자는 가혹한 결론에 이른다. "마리아는 헌터의 연인/정부amante이다." (141/208)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하인에게 떠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무한한 슬픔을 안고 떠난다. 그는 그 후 며칠 동안 잘 기억나지 않는 "잔혹한 나날들"을 보낸다.

그는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거나 항구의 벤치에서 며칠을 보낸 것 같은 불확실한 기억을 더듬는다. 하루는 술집을 몇 군데 전전하다가 깨어보니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다.

그는 마리아에게 (사실상 마지막인) 편지를 쓴다. 먼저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고('도망친'이 아니란 '떠난' 으로 고친다) 하고 그녀가 보여준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에게'를 '나라는 인간에게'로 고친다), 그녀 자신이 알려준 것처럼 가끔씩 그녀가 '저속한 격정'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상냥하고 순수한 감정이 넘치는 사람임을 이해한다고 쓴다. 그리고 "출항하는 배나 공원에서 바라본 황혼의 가치", 곧 마리아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만, 그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할'을 '계산할'로 바꾼다) 그런 평가도 사랑을 유지하거나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쓴다. 그러니까 그녀가 헌터와 자면서 동시에 자기 남편과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쓴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고치면서 "충분히 공격적인" 점을 확인

하고 그것을 보낸다.[4]

---

4) 실제로는 편지를 보내자마자 마리아가 헌터의 정부라고 유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를 상처 입힘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혹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마음을 나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하

그 후에 그는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나무 그늘에 앉아서 행복한 시절을 회상한다. "내가 마리아를 의심하고 미워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들 사랑의 가장 좋았던 순간들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내 영혼을 부드럽게 사로잡았다." 그의 슬픔은 불안으로 바뀌고, 마리아에 대한 증오가 자신에 대한 증오로 바뀐다. 그는 농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통화하지 못하고) 한 시간 뒤에 그녀 쪽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그는 편지보다 더 심하게 공격한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부드럽게 시작했으나, "그녀의 괴로워하는 듯한 목소리", "그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는 점" 때문에 흥분해서 점점 폭력적이 되면서, 자기 말이 옳고 그녀의 고통이 부당하다며, 그래서 자살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래서 당장 만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한 번 서로에게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는 것 말고는 우리가 얻을 게 없을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난 자살할 거요.")

마리아와 만나기로 약속한 전 날, 그는 기대감과 함께 증오심에 사로잡힌다. 그는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술집에서 여자와 어울리다가 그녀를 자기 화실로 데리고 온다. 그들이 함께 누웠을 때 무서운 생각이 스쳐간다. "그 루마니아 출신 여자의 표정이 언젠가 마리아의 표정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했다." 그는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 "마리아와 창녀는 잠자리에서 유사한 표정을 지었다. 창녀는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했고, 마리아도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창녀다."(152/235-6)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른 그는 결판을 내고자 결심하고 "과거의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회상한다. (처음 통화할 때 목소리를 바꿈으로써 위장능력을 보여준 점. 불가사의한 말들로 주위에 있던 흐릿한 그림자들의 존재가 드러난 점, "내가 당신을 해롭게 한다"는 말, 고통스러운 성냥불 장면, 처음에 키스를 거부했고, 자신의 증오심을 고백하도록 다그쳤을 때, 자기에게 육체적인 사랑만을 허용한 점, "육체적인 쾌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어머니나 누이 같은 애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육체적 쾌락을 못 이겨 흥분하고, 쾌락에 취해서 무심결에 무슨 말인가를 내뱉고, 절정에 이르러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린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아옌데 같은 금욕주의자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녀의 특이한 성적 기교는? 남편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답하면서 자기감정을 교묘하게 꾸미거나 속일 수 있음을 보여준 점. 헌터의 어색한 질투. 바닷가 절벽에서 "언젠가 한번 착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한 말--누구와 언제, 어떻게 착각했단 말인가? 루마니아 여자와 함께 지낸 소름 끼치는 장면, "자기 그림을 보

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든 마리아가 헌터의 애인이라는 결론은 공격적일 뿐 전혀 근거가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체국에 다시 달려가서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한바탕 소동을 부리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포기한 뒤에는 생각을 바꾸어서 편지를 잘 썼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이처럼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다가 막상 패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다.

고 웃던 짐승 같은 여자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던 그 연역한 여자,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 같은 표정을 지녔다니! (...) 두 여자가 동일한 표정을 지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이 하나라는 슬픈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빌어먹을!" (153/238-9))

***그녀의 부재**

그는 (증오심을 감춘 채) 레콜레타 지구의 늘 만나던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녀는 만나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염려한다. 둘 사이의 허약한 다리마저 부실해지고, 서로 상처 입힐 수 있고, 게다가 헌터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한다.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5시 정각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는 일찍 가서 기다린다. 그는 그들 사랑의 증인인 나무들과 오솔길들, 벤치들을 보면서 우울한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우리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까? 전에는 모든 것이 기적, 환상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음산하고 차갑게 보였다. 만약 사랑을 잃는다면 "혼자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다.

"마리아의 과거 남자관계가 왜 나에게 중요하지?" "설령 그녀의 도움이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교감하던 순간에만, 우리 두 사람을 결합시켰던 신비스러운 사랑의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했더라도, 나는 그녀의 도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156/246) 그래서 그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5시 반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농장에 전화를 걸었는데 하녀가 그녀가 농장으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것이라고 전한다. "그날 오후 그녀를 만나고 싶어 그토록 애타게 간청했건만, 그렇게도 그녀를 필요로 했건만!"(156/247) 그는 그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공원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과 농장에서 헌터와 자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음이 틀림없어." 그는 다시 아옌데 집으로 전화해서 하녀로부터 마리아가 농장으로 떠나기 전에 농장에 있는 헌터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는 "승리감과 고통"에 사로잡힌다. "예상했던 대로야! 무한한 고독과 어리석은 자부심, 내가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동시에 나를 지배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는 대신에 그녀와 관련된 자신의 작품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칼을 들고 화실에 들어간다. 자신의 옛 그림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문제의 그림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해변이,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항상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여자가, 그 기다

림이 산산 조각나는 모습이 내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드러났다. 나는 화포조각들이 더러운 걸레로 변할 때까지 발로 짓밟고 뭉개버렸다. 이제 앞으로 그 어리석은 기다림에 대한 회답은 결코 받을 수 없을 거 야! 나는 그 기다림이 전혀 쓸모 없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157/249-250)

*** 터널, 그 안과 바깥**

그는 친구의 차를 몰고 (시속 130킬로미터로) 그녀에게 달려간다. 달려가면서 그녀가 뚫을 수 없는 유리벽 뒤에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녀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도, 몸을 만질 수도 없다. (158/251-2)

그는 "자책과 증오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그녀가 자기를 버린 이유를 가장 냉혹하게 상상하면서 "고통스러운 쾌감el doloroso placer"을 느낀다.

"한 쪽에는 내가 있었고, 그날 오후 나를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무엇을 하려고? 모호하고 거북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다시 한 번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 보려고,

우리 각자의 초조하고 절망적인 시선을 서로 바라보려고, 우리의 신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유리벽을 통해서 헛되이vanamente 서로를 만지고, 더듬고, 애무하고 싶어서, 그런 불가능한 꿈을 다시 한 번 더 꾸려고. 다른 한 쪽에는 헌터가 있었고, 그가 전화기를 들고 부르기만 하면 그녀는 그의 침대로 달려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정말 해괴하고 서글픈 짓이군!"(158-9/252-3)

그는 밤늦게 농장 근처에 도착한다. 엔진 소리 때문에 차를 국도변에 세워놓고 농장까지 걸어간다. 농장에 도착하니 아래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저택이 보이는 공원에서 기다린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과 고통을 주는 유리벽을 상상 속에서 펼친다. 그에게 시간은 무한하고 복잡한 어떤 것이 된다. 그의 시간은 "온갖 사물, 과거로의 회귀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때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검은 강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상할 정도로 잔잔한 바다, 마리아와 내가 그 안에서 꼼짝도 않고 서로 바라보는 정지된 바다, 영속하는 바다와 같았고, 다른 때는 다시 강으로 변하기도 했고, 우리를 어린 시절의 꿈처럼 끌고 가기도 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말을 탄 그녀가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몽롱한 시선으로 질풍처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고, 남쪽 마을 내 고향에서, 내 병실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붙인 채 역시 몽롱한 시선으로 눈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곤 했다." (159/254-5)

두 사람은 평행한 채로 이어지는 상이한 통로들, 터널들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 두 사람은 그녀만을 위한 기호로서 내가 그려놓았고, 내가 이미 그 곳에 있고 그 통로들이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만남의 시각이 도래했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알리는 것으로서 내가 그려 놓았던 장면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 통로들 끝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비슷한 시각에 떠돌아다니는 비슷한 영혼들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서 동시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160/255)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은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지닐 것인가? 두 통로가 합쳐지고 두 영혼이 서로 소통할communicado 수 있는가? 통로는 만남의 매체인가, 아니면 분리와 파국을 초래하는 장애물인가? 그 통로를 가르는 유리벽 때문에 "마리아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고, 유리벽은 가끔 검은 석벽으로 변해서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이지 않을 때 그녀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그런 순간들에는 그녀의 얼굴이 변하고, 우롱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음을 교환했을 것이고, 통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나의 우스꽝스러운 고안이거나 나의 믿음이었고, <어떻게 되었건 통로 하나가, 어둡고 외로운 터널 하나, 나의 터널이, 나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내 일생이 지나갔건 터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160-1/256)

그는 석벽 사이에 있는 투명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녀를 보면서 순진하게 그녀가 자기 터널과 평행한 다른 터널로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만남이 보장된 평행한 터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혼자서만 터널에 갇혀 있고, 그녀는 그 바깥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

"이 아가씨는 실제로 어느 넓은 세계, 사람들이 터널에서 살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sin límites 세계에 속해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나의 특이한 창문 가운데 하나에 다가와서 구제할 수 없는 고독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몰래 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내 그림의 침묵하는 언어lenguaje mudo, 열쇠clave가 그녀를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160/257)

그가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녀는 바깥에서 마음껏 누리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만날 수 있는 세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가 상상하는 다른 세계에서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그녀가 춤과 파티를 즐기면서 "일상적이고 자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기이하고 부조리한"삶이나 "유쾌하고 부질없는" 생활을 하는 상상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녀와 그의 삶은 무관하지 않다. 그가 그녀에게 갈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그에게 오거나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창문 가운데 하나를 지나갈 때, 가끔씩 그녀가 말없이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곤 했다 (왜 나를 기다리는 것일까? 왜 말없이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않거나 가끔 통로 안에 갇혀 있는 이 가엾은 존재를 잊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얼굴을 유리벽에 바짝 붙인 채 저 멀리서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있거나 태평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나 아주 추잡한 곳에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내 운명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할 수 없이 고독했다."(160-1/256-7)

그가 이처럼 바다와 터널을 상상하고 있을 때 그 둘이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심장이 얼어붙고 딱딱해진다고 느낀다. 그는 그녀가 그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를 지옥에 내던진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그날 오후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내가 쓸데없이 자기를 기다리면서 매 순간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평온한 상태에서 즐기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추리와 상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지옥에서 고통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저 연약한 여인의 가슴에 그토록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추잡한 짐승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니!"(161/258-9)

그의 사고에 더 이상 자신이 그녀를 괴롭힌 일이라든가 그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자신과 다른 그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녀만 존재할 뿐이다. 물론 그녀의 죄는 사랑을 배신한 것이다.

그는 마리아가 그 어리석은 인간과 팔짱을 끼고 함께 공원을 걸어 다니고, 향기를 맡고, 풀밭에 앉아서 즐기면서도, 자기가 "내장을 파먹는 굶주린 구더기들"에게 시달리며 "검은 사막"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여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가?

그는 마리아와 그 남자가 자기("터널 속에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남자")를 비웃는다고 여긴다.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원을 거닐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헌터의 침실에 불이 켜진다. 다음에 다른 침실의 불이 켜져야 한다. 그런데 끝내 다른 방의 불은 켜지지 않았다. "오, 하느님. 그 순간 무한한 고독의 감각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텅 비어 버렸는지 말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무인도에 갇혀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가 구해달라는 내 신호를 못 본 채 멀리 스쳐 지나가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162/261)

***사랑하였으므로...**

이제 그가 그녀를 죽이는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다. 그녀를 응징하는.....그는 그녀를 왜 처벌하려

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감정이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가 "그녀를 사랑했다", 또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폭풍우 속에서 창문의 창살에 의지해서 2층까지 기어 올라간다. 그녀의 침실을 찾아 간다. 떨리는 손에 칼을 쥔 채 침실 문을 연다. 그는 그녀 곁에 선다.

"뭐하는 거예요, 후안 파블로?"

"당신을 죽이려고 왔소. 마리아! 당신이 나를 홀로 버려두었잖소."(163/263)

그는 울면서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5]

그는 그녀를 죽인 후에 곧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달려가 남편 아옌데를 찾는다. 그는 아옌데에게 소리 지른다. "방금 농장에서 돌아왔소! 마리아는 헌터의 정부였소!" 아옌데가 자기 말을 믿지 않자 다시 소리 지른다. "마리아는 나의 정부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남자들이 정부이기도 하단 말이오."

그는 무서운 쾌감을 느낀다. "내가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그녀가 우리 모두를 속였소! 하지만 이제 누구도 속일 수 없소. 이해하겠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니까!"

"이런 미친 놈insensato 같으니!" (163-4/264-5)

그는 경찰서에 자수한다. 그 후 남편 아옌데는 자살한다. 공판 과정에서 화자가 그림의 창문 장면을 언급하자 사람들은 웃는다. 그는 자기 안에서 "시커먼 동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낀다. 감옥에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화자가 마지막으로 남기로 싶은 말은 "사랑 한다"는 말일 것이다. 물론 이 사랑은 막연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유일한 대상에게 바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사랑했다'로 들리지만 그에게는 현재형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가 곧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현재(진행)형에 자기를 던지고 싶기 때문일 것이리라.)

"내 그림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밖에 없었다sólo existió un ser. 하지만 이 작품들은 우둔한 관점을 지닌 비평가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더 칭찬을 받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지옥의 벽들은 날이 갈수록 더 밀폐된 상태가 될 것이다."(165/268)

---

5) "그녀는 턱을 악물고 두 눈을 감았는데, 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뽑자 안간힘을 써서 눈을 뜨더니 고통에 찬 비굴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분노가 내 영혼에 불을 질렀고, 나는 그녀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더 찔렀다."(같은 곳)

참고문헌

Sábato, Ernesto, El túnel, Catedra, 1989.

에르네스토 사바토,『터널』, 조구호 옮김. 이룸, 2006.